

# 無欲의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香氣

—백이운 시조론—

허남춘\*

## 차례

1. 우리에게 현대시조란 무엇인가
2. 먼 곳의 그리움
3. 빈 곳, 無慾의 세계
4. 일상과 폭력
5. 香氣

## 1. 우리에게 현대시조란 무엇인가

조선조에 유행하다 이제 그 전통은 사멸되고 일부 사람들에 의해 답습되는 고전적인 양식인가. 아니면 고려말에 발생하여 1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창작되던 것이 500여 년 동안 계속 명맥을 유지하는 역사적 장르인가. 20세기 초 애국계몽기 시가(시조와 가사)는 중세적 형식이란 그릇에 근대정신을 담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후에 일제에 의해 강제 퇴장당했다. 그 자리에 서구적 서정시가 대체되었고, 우리의 근대시는 바로 일본을 경유한 서구적 근대의 이식이라고 대부분 주장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하고 있다. 그러나 온당한 시각이 아니다. 시조에 담으려던 근대적 정신은 일제에 의해 그 발전적 계승이 저지되었지만, 이후 20년대 만해의 시로 이어졌고, 시조부흥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지금 주옥같은 현대 시조가 있지 않은가.

시조는 정형시이고 이는 낡은 중세적 형식이라 운운한다. 근대는 자유시와 산문시의 시대라 한다. 시조나 가사 같은 낡은 형식을 버리고 자유시를 얻게 된 것이 중세성을 청산하고 근대성을 획득한 자랑스러운 처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시가 정형률을 지니면 촌스러운 것이고, 정형률에서 벗어나 자유율을 구가하면 현대적이고 가치 있는 것인가. 의아할 뿐이다. 현대의 일본인들은 아직도 하이쿠 짓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미국에도 2만여 명의 하이쿠 시인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것을 버리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현대시가 시 속에 있던 음악성을 상실하며 그 존립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아니던가. 4음보 3행의 단정한 율격에서 오는 미감, 즉 음악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시조는 현대에도 살아 있다. 그리고 나는 어느 여고생의 시조 백일장 당선소감을 기억한다. “시조는 수다스럽지도 않고 간결해서 좋아요” 휴대전화를 통해 쏟아지는 수다스런 문화를 혐오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간결의 미학을 알 것이다.

白利雲의 시조에서도 전통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전통시조에 있던 균제미나 안정감, 변화미와 완결미를 느낄 수 있고, 내적 성찰의 기미를 감지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조의 시조가 유가적 세계관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게서는 불가적 세계관에 의한 내면의 응시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그것은 무·불·도·유가 결합된 민족 정서의 표출이고, 현대적 발랄함과 자의식의 분출이며, 내다보기와 들여다보기의 다양성으로 드러난다.

## 2. 먼 곳의 그리움

白利雲의 시조에서 우선 두드러지는 것은 '먼' 곳에 대한 용시이다.

살아서 그리움보다 더 먼 것은 없었네(<귀뚜라미>  
한사코 더 먼 데로만 귀를 열고 있었어라(<그날 나는 하염없이 가는귀  
먹어>  
길은 먼 데로 뻗어 있네(<길>)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님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심정이 드러나고, 깊은 밤 잠 못 들고 슬피 우는 가을의 구애곡이 들려 온다. 또한 부드러운 사랑의 속삭임이 잠시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더라도 먼 곳을 향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하다. 그래서 지난 젊은 시절의 상처를 떨치고 먼 곳으로 향한다. 먼 곳의 그리운 소식을 향해 귀를 열고 있는 화자의 모습 속에 작가의 사랑을 향한 그리움이 스친다. 그리움은 늘 질퍽하다.

분홍빛 아련한 그늘로 눈물꽃 사태진다(<눈물꽃>  
울면서 따라간 낯달 바람 한 점 얻어오네(<寂>  
허전히 가을만 남아 빈 배 곁에 기댔네(<그 날>  
시도록 아픈 젊음이 나에게도 있었거니(<길>)

유독 종장 쪽에 슬픔이 배가된다. '아련한' '울면서' '허전히' '시도록' '눈물'의 단어들이センチ멘털리즘의 서정을 느끼게 한다. 대부분의 현대 시가 지나친 감상주의에 빠져들고, 충만한 감정이입을 詩作의 전범으로 여기는 태도가 있는데, 白利雲에게도 그런 느낌이 든다. 수식어들이 글자수를 채우기 위한 배려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를 감상주의의 아류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이 닿는 곳에서 그런 감상적 정서가 일부 드러날 뿐이다. 작가의 女性性和 母性愛가 스쳐 지나간 곳에 남겨진 다정다감이다. "혼곶히 잠들어 버리는 건 무슨 까닭

이람”(〈게으름을 위한 명상〉)에서의 ‘까닭이람’과 같은 표현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녀만의 양증맞음이다. 진정 그녀의 품안에 들면 복잡한 심사를 떨치고 곤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

산벗나무 박달나무 적송 뒤로 물푸레나무  
말뚝땡기 드리운 그리운 이름들이  
한 발짝 다가와서며 더운 손을 내민다(〈암자로 가는 길〉)

숲 속의 나무들이 묵묵부답으로 서 있다가 그녀가 다가서면 더운 손을 내밀 듯이 친근해짐은 지극한 관심과 사랑 때문이리라. 우리들에겐 그냥 나무로 지칭되는 것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할 때까지 먼 거리의 객관적 사물들이었는데, 그녀의 숨결이 닿자 푸른 기운으로 살아난다. 그래서 ‘그리운’ ‘더운’의 형용사가 대상을 한정하더라도 감정과잉의 폐단은 없다.

속 다 빼먹혀 우렁우렁한 우렁 깎질  
내장 죄 훑어내어 눈 그윽한 등신불  
뱃길은 굽어 八十里 흰 돛폭만 필러였다(〈그〉)

산은 묵묵부답으로 멀찍이 앉아 있고  
눈길 주지 않고도 강은 흘러갔어라  
허전히 가을만 남아  
빈 배 곁에 기뻐네(〈그 날〉)

〈그〉의 초·중장에는 마음속을 모두 내 주고 내장까지 꺼내 준 헌신적인 사랑이 드러난다. 그러나 애육에 애달파하지 않는다. 그저 그윽한 눈길로 그의 떠남을 바라보고 있다. 초·중장의 ‘나’의 情이 종장의 ‘그’의 景으로 마무리된다. 情景이 뒤집혔다면 감상적 정서로 빠질 수도 있었고, 등신불 혹은 망부석의 의연한 척함이 거짓으로 여겨질 수도 있

었는데, ‘그’를 景으로 처리하여 맑고 상쾌한 시상을 얻었다. 시어의 조합과 배열이 절묘하다. <그 날>의 초·중장에는 산의 靜과 강의 動이 잘 어우러진 景이 되고, 종장의 情도 景으로 남게 만들어 ‘허전히’ ‘빈’의 감상적 정서를 차단한다. 3인칭을 1인칭의 빈 공간으로 수렴하는 기발함이 있다. 그래서 白利雲의 시조에서 ‘먼’ 공간을 향한 막연한 그리움은 ‘빈’ 공간의 寂으로 향한다.

### 3. 빈 곳, 無欲의 세계

먼 곳을 향한 그리움으로 외피를 입은 시조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인간의 욕심과 집착을 버린 ‘무욕의 세계’ 혹은 ‘윤회의 끝’이다. 길이 먼 데로 뻗어 있다고 한 배경에는 불교적 인생관이 스며 있다. “스무 해 전날의 푸른 자전거 바퀴가 스무 해 뒷날의 자전거 바퀴를 굴리네”( <길>)에서처럼 젊은 시절의 삶의 태도가 중년의 삶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인과론을 제시하고, 現生の 내 삶은 또 來生の 삶을 결정할 것임을 알고 있다. 여기서 자전거 바퀴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의미하니, 그 먼 곳은 윤회의 끝임을 알 수 있다. 그는 현생을 前生の 결과라고 하며 “삼월은 전생의 빛 갚는 달”( <神의 삼월>)이라 했다. 익명의 꽃이 꽃샘 추위에 바스라지는 시련을 당함을 보고 그렇게 말했다. 꽃은 봄이 오면 계절로 피는 것은 아니다. 우수와 경칩이 지나고 봄이 온 듯하지만 삼월의 모진 꽃샘 추위를 견뎌내야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시련을 견디는 자만이 인생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는데, 그 시련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것이고 전생의 업의 결과라는 인과율을 화두처럼 던지고 있다. 이를 운명론적 결정론으로 보지는 말자. 어차피 누구에게나 닥치게 마련인 시련과 고통을 잘 이겨내야 한다는 당위로 보자.

자신의 현생을 윤회의 고통으로 표현한 <轉生>을 보면 그의 세계관

이 명료해진다. 깊은 벼랑에 절망을 들쳐업고 오르고 있다고 하며, 산정은 보이지 않고 넝쿨에 발목이 찢긴 상황, 어둠이 덮쳐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 자신을 보호할 어떤 끈도 없이 벼랑을 오르는데 앞은 간간한 어둠이 덮쳐 두 눈마저 멀게 됐다고 했다. 고통이 늘 엄습해오고 한 발 아차 하면 벼랑 아래로 떨어질 정황이건만, 간절한 목표도 없이 갈 길 몰라 허둥대는 우리의 인생살이를 향해 “놓아라”라고 작가는 절규한다. “불현듯, 놓아버린 손 지금 나는 허공 중이네”라 했다. 우리의 끊임없는 욕망의 줄을 놓으면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放下着’의 화두를 던지고 있다.

헤진 고무신에 누더기 장삼을 남기고 떠난 스님을 떠올리며 “우리들 녀마 같은 삶을 좀 돌아보라고” 권하기도 한다.(<빈 산>) 虛空藏에 와 웃어 보기도 하고 춤도 추어 보라는 가르침을 남기고 떠난 스님의 이름이 빈 산에 가득하다고 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신라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무애가를 부르고 춤을 추던 원효 스님을 연상케 한다. 땅 속의 귀신을 제도하는 이가 地藏보살이라면, 허공 속의 귀신을 제도하는 이가 虛空藏보살이다. 녀마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이 허공을 떠도는 귀신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 그런 삶을 한번 돌아보라고 질책하고 있다. 가난했기 때문에 더욱 큰 것을 얻을 수 있었고, 비어 있기 때문에 가득 채울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고통이 神인 세상에서도 넉넉했던 내 바리때여  
하나를 비우면 비운 만큼 채워지고  
다시 또 비우고 나면 그 이상을 넘쳤어라  
잘라낸 가지에서 초록 새 잎 나듯이  
때가 되면 돌아오는 목숨, 목숨의 향기  
가슴에 금빛 햇살 달고서 종내 나는 느껴왔네(<고통이 神인 세상에서  
도>)

내 주변의 일화 하나를 소개한다. 12년 전 후두암을 선고받고 방사

선 치료를 하던 이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건만 암세포는 더욱 커져  
만 가자 크게 낙담을 하고, 1년간 휴직을 결정하고 고향 서귀포에서 서  
서히 죽어갔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감귤나무 자른 가지에서 새 잎  
이 나는 것을 보며, 아하 인생은 제 스스로 어찌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란 깨달음을 얻은 후, 살아야한다는 욕망을  
버리고 세상사의 집착을 끊었다고 한다. 여생을 잘 마무리하겠다는 생  
각과 세상에 감성... 각고 신에 귀의했더니(그는 기독교 신자  
이다) 기쁜 마음이 새록새록 기쁘게... 몸도 예전처럼 아프지 않  
고 몸의 움직임도 가벼워졌기에, 서울 병... 을 받았더니 그  
... 죽어들었다고 했고, 두 달 후에 ... 너 혼적도  
없이 사라...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 건강  
... 마음을 비우면 ... 향기가 솟  
아... 이 아닌가. 마음을 비우면 ... 그래서 白  
아나... 는끼는 시인의 깨달음이 ...

...라보며, 일상의 관념과 집착을 “버  
가지도 없이 ... 하며 ‘버림’을 이야기한다.  
... 불 수가 ... 그 뿌리로 돌아가  
... 무성한 수목의 꽃과 ... 는 老의  
고 ... 되고, 이를 천명대로 ... 는 길  
... 다. 버리고 떠나고 죽는 일... 얻는 길  
... 준비하는 길이다.  
... 이야기하고, 버려야 實相을 볼 수가 있다고 한다.  
... 그는 “도심의 텃에 걸린 들짐승 우우 울  
... 있는가... 실상은 어디에 있는지”(〈吉祥  
... 상을 찾아 나선다. 실상사라는 절을 찾  
... 상을 찾아 나선다. 실상은 마음  
... 생각하지는 않는다. 실상은 마음  
있고, 그 마음조차 모두 버려야 실상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고 있다

화살 같은 빗소리도  
이 방에 들면 등글어지고  
흐릿한 불빛 아래  
一念 오롯해진다  
천지간 가득한 은혜  
차고 넘침이 없구나(<한 평 반>)

여기서의 한 평 반은 어디인가. 무덤 아니면 화장실일 게다. 세상의 모든 현상이 죽음 뒤에는 무덤의 봉긋한 봉분처럼 등글어지고, 죽음이 모든 고통을 떨쳐버린 은혜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수천 평의 땅과 수백 평의 집을 짓고 땀땀거리도 돌아가 누울 곳은 한 평 반의 무덤이면 족할 것을 사람들은 왜 그리 재물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는 가르침으로 ~~무덤도~~ 좋겠다. 흐릿한 불빛의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버리고 나면 가득 채워지는 기쁨, 이 기쁨도 역시 욕망을 털어낸 뒤의 법열 혹은 眞樂을 뜻하니, 한 평 반은 화장실이고 그곳에서 無欲의 세계를 경험한 술회인 듯하다. '차고 넘침이 없는' 세상은 일상의 공간에서 그리 ~~마음 좋구나~~

#### 4. 일상 속 폭력

그의 일상은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추억 속에 그 사랑이 넘친다. 초등학교 시절의 이 잡던 애, 디디티 가루를 뒤집어 쓴 애, ~~배고~~ ~~하는~~ 애를 떠올리며 썩개떡을 먹던 시절을 회상한다.(<썩개떡>) 어린 시절의 기억은 약수동의 추억으로 이어진다. 풀목 어귀에 있던 해장국집 여인네의 넉넉한 정을 이야기하며, "이 강산 落花流水 흐르는 사랑"은 선지의 붉은 빛으로 살아나 상처 입은 사람들의 삶을 끌어안는다.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간 기억 속에서 "반쯤은 늘 젖어 푸



근한" 삶을 현재시제로 뉘아 올린다.<이 강산 落花流水>) 꿈에 검정 신을 잃고 맨발로 해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추녀 밑을 서성거리는 설정도 어린 시절 그의 가난했던 기억이리라. 그는 새 신을 신겨 줄 신랑의 만남을 회구하고 검정신이 희게 되길 기원한다. 한 남성에게 의해 운명이 전환되길 바라는 꿈속에 여성스런 나긋한 풍모가 느껴진다.<새벽 닭 우는 소리에>) 사랑을 받을 줄도 아는 여성이다. 차가운 슬픔 속에 놓인 별이 神의 "뜨거운 입김 불어 넣어주길"<별>) 기다리는데, 인간을 예쁜 별로 치환하여 사랑의 입김을 기다리는 존재로 그린 점도 위와 상통한다.

그의 사랑은 견고하다. 벼락맞은 대추나무처럼, 부적처럼 영험을 지닌 견고한 맹새가 있다. 기다림 속에서도 사랑은 퇴색되지 않고 더욱 강해진다. 그리움을 따라 강물을 내려가면 "내 사랑 반쯤 굶은 돌이 되어 앉아 있구나 물소리 몸에 두르고 물이 되어 앉았구나"<혼적>)에서 처럼 그의 사랑은 돌처럼 불변하고, 물처럼 유연하고 영원하다. "앉아 있구나 - 앉았구나" "되는 거야 - 싶은 거야"에서 중장과 종장의 리듬이 반복된다. 초·중장의 시상이 종장으로 결집되지 않고 중장의 의미를 반복함으로써 "어마님ㄹ티 괴시리 업세라 아소님하 어마님ㄹ티 괴시리 업세라"<사모곡>)의 고려가요적 여운을 주기도 한다.

그의 사랑은 중력이 있다. "지구의 중심을 향해 자신을 던지는 거다...모과 같은 사랑 있어 또 가을은 오는 거다"<願>) 자신의 무게로, 사랑의 무게로 땅에 떨어져 또 다른 결실을 예비하는 희생적 삶의 가치를 던져 준다. 우리의 사랑이 하늘만을 향해 경배한다거나 이미 정해진 꺾을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다면 이데올로기적 화해만을 꿈꾼다면 인생은 무미건조할 것이다. 모과처럼 땅을 향한, 지구의 중심을 향한 사랑이 존재할 때 우리는 풍요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이의 지구를 향한 사랑이 어느 꼭지점에서 만날 때 우리는 평화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그의 그런 사랑은 일상의 폭력을 거부한다. 매일매일 신문을 채우는

홍물스런 사건 기사 속에서 좌절하며 “내게 주어진 평화, 참말로 똥 같아라”(〈내게 주어진 평화〉)라 내뱉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비질을 해도 씻기지 않는 우리 사회의 폭력성에 안타까워한다. 사회 평화니 세계 평화니 하는 말들이 헛구호임을 ‘똥 같아라’란 신랄한 말로 들추어내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성은 우리들이 무심코 보고 지나치는 헐리우드 영화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그러한 헐리우드 영화의 폭력성을 고발하기도 한다. 영화 장면 중에서 아내가 남편을 쏘아 죽이는 장면을 들어 그 이면에 있을 법한 남성의 폭력을 질책하기도 한다.(〈그〉) 한편 일제의 파시즘적 폭력이 휩쓸고 지나간 대동아전쟁 당시의 조선의 비애를 들추기도 한다. 어린 학도병이 전쟁에 끌려갔다가 죽어 메이지 신궁에 제사되기에 그곳 풍경이 “죄죄, 운다”(〈풍경〉)라고 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죄를 꼬집어낸다. “조선 집 추녀 끝에 날아와 밤새 죄죄, 운다”고 듣는 이유는 나라를 잃은 우리의 죄와 비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내 귀가 문드러져  
내 입이 문드러져  
내 살이 문드러져  
내 뼈가 문드러져  
화약 문 내 피가 문드러져  
검은 비에 젖고 있네(〈사막의 달〉)

육신이 문드러짐을 낱낱의 부분을 들어 반복하고 있는데, 그 원인-“화약을 문”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삶의 비애는 화약 즉 무기와 전쟁 폭력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고발한 시이다. 이처럼 작가는 사회의 폭력에 진저리를 친다. 그리고 자그만 일상의 폭력에도 반성의 칼을 다. 바퀴벌레를 책으로 내리쳐 죽인 후, 생명에 대한 경의를 느끼며 회하고 자신의 살의에 몸을 던다.(〈伏·바퀴벌레·점심〉) 꽃이 피

소리를 “목련은 신명난 북채 하늘 북을 두들긴다”(〈목련은〉)라 하여 우리 같은 생명 탄생의 소리를 듣는 그가, 작은 벌레 한 마리에도 인간에게도 생명의 경외를 느끼고 있음은 당연하다.

## 5. 香氣

白利雲의 시조에는 향기가 있다. 자신의 욕망을 비우면서 얻게 된 여백의 향기가 있다. “잘라낸 가지에서 초록 새 잎 나듯이 때가 되면 돌아오는 목숨, 목숨의 향기”에서처럼 푸른 목숨의 향기가 있다. 화려하지 않은 잡목이나 들꽃의 질긴 삶 속에서 향기를 느끼는 질박미가 있다. “잡목들 품어 향기로운 숲”(〈기억 속에〉)이란 구절을 읽으면, 완숙한 여인은 장미나 백합의 화려한 꽃이 아니라 끈질긴 개아욱 꽃의 향기로 피어난다는 『고요한 돈강』의 질박한 여인을 떠올리게 된다. 白利雲도 들꽃의 향기를 지녔으리라.

香山의 잘린 집게손가락이  
선암사 두물 차를 내는데  
내고 또 내어봐도  
첫물 향 첫물 맛이다  
사방이 탁 트인 解憂所  
또한 그 집 가풍이다.(〈香山의 집게손가락〉)

남북통일이 되면 묘향산에 들어가 수행하겠다는 願을 세운 향산 스님은 연비공양을 하였던가 집게손가락이 없다. 용맹정진하는 스님이 끓인 차에서 당연히 본성 같은 변하지 않는 차 맛이 우러날 것이다. 첫잔은 색깔로, 둘째 잔은 향기로, 셋째 잔은 맛으로 먹는다는데, 향산의 차는 첫 잔부터 여러 번 우려 낸 잔까지 맛과 향이 어우러져 眞如一體

이다. 그 차를 마시는 작가의 미각과 취각이 그리 된 것이다. 작가는 화장실에서조차 차 향기를 맡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선암사 절집의 향기가 잘 전해진다.

“재 너머 成勸農 집에 술 익단 말 어제 듣고”의 정철 시조를 연상케 하는 <바람으로 빚은 술>은 “바람으로 빚은 술 마침 잘 익었다기 언덕 너머로 찾아갔더니 향기로만 남았네 못물을 활짝 열어놓고 연꽃 환히 피었네”에서처럼 술 향기를 맡고 재를 넘는다. 술 향기를 아니 웬만큼 낭만적인 구석이 있다. 그런데 그 술은 바람으로 빚었다고 했다. 모든 것은 쉽지만 바람은 끊임없이 세상의 생명력이다. 바람은 그 불어제침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니, 그 술은 생명력의 원천일 게다. 그런데 그곳에는 연꽃이 활짝 피었다고 하니 색깔과 향기가 절묘하게 어루러진 경계이다. 꽃과 술 때문에 생명력이 넘치는 이상향을 그려 놓았다. 제의적인 주술성까지 전해주어 섬뜩하다.

“어릴 적 낭창낭창한 어머니의 회초리 맛”(〈雁行〉)에서는 치통을 앓던 기억을 가는 회초리가 종아리를 파고드는 듯한 아픔으로 표현하여 감칠맛이 난다. 작가는 곳곳에 이런 의태어나 의성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더해 준다. “싸리꽃 왁자한” “찰박이던 물결” “각각 우는 까막까치”에서 섬세한 표현력을 느낄 수 있다.

우리 가슴 어딘가에도 히말라야가 서 있듯이

우리 가슴 어딘가에 雪人是 살고 있다

때로는 미담의 山頂까지 우릴 불러도 간다(〈그리운 히말라야〉)

전체가 3연인 이 시조에서 1연은 雪人과 산의 관계를, 2연은 하늘과 산과 설인의 관계를, 그리고 여기 제시한 3연은 산과 인간의 관계를 제시한다. 우리 가슴속에도 높고 깊은 산의 심성이 있으며, 산에 깃들여 산처럼 사는 설인의 심성이 있다고 한다. 높은 곳에 올라 인간 심성의 바탕을 굽어보는 듯한 고취가 있다. “설산이 높고 깊은 건 그가 거기

있어서다”의 절창을 들으며, 인간이 산에 깃들어 산의 심성을 닮을 때 높고도 웅대한 뜻을 가질 수 있다는 해석을 해 본다. 문명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에서 밀려난 자연, 특히 우리네 신화와 전설이 점철된 산을 끌어안을 때 문명의 때를 벗고 옥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게 아닌가. 작가는 산 같은 깊은 향기를 전해주어 심혈에 누적된 잡념을 일거에 씻어 주고 있다.

이 글은 작가의 신화와 전설을 담은 시들을 채 해독하지 못하고 있다. 南師古의 고사나 商山四皓, 寒山拾得의 고사도 눈에 띈다. 그의 시는 폭이 넓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두드러진 특징만을 몇 가지로 살필 뿐이다. 특히 ‘먼’과 ‘빈’의 무욕의 경지를 깊이 드러다 보았다. 독자들은 그의 시에 들어가 앉아 세상을 내다보길 권한다. 상쾌한 세계가 펼쳐질 것을 확신한다.